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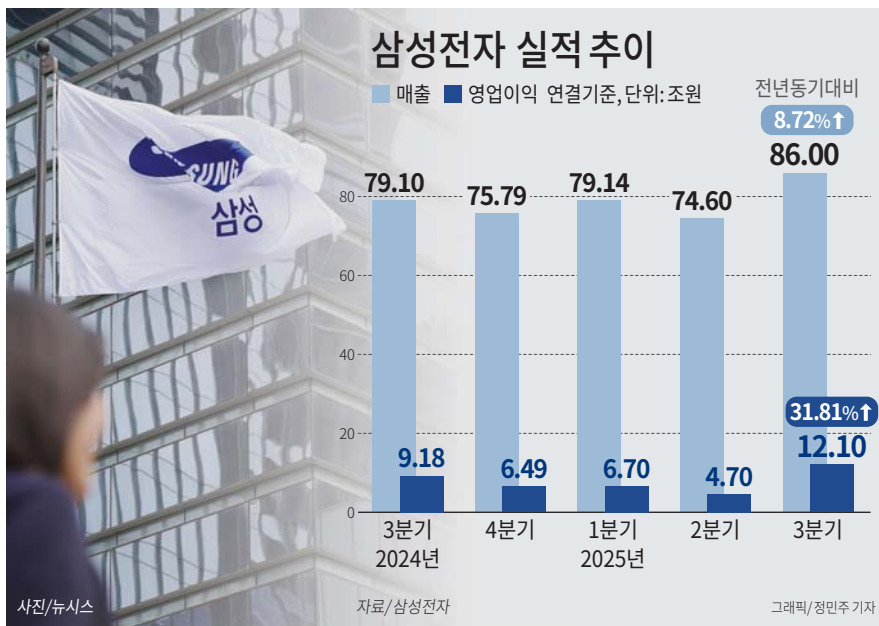
D램 수요·가격 회복세… K-반도체, 내년 실적개선 '청신호'

삼성전자 DS 영업이익 6조 추정
국내외 공장 증설… 신규투자 추진
업계, 내년까지 D램 가격 상승 전망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6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들의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D램 가격이 상승한 것이 실적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D램 가격 상승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4일 삼성전자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삼성전자는 매출 86조 원, 영업이익 12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72%, 영업이익은 31.81% 증가했다.

사업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반도체 사업이 전사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전반적으로 메모리부문 실적 개선과 비메모리 적자 폭 축소, 플래그십 스마트폰 실적 개선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범용D램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것이 실적 개선의 추진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16Gb의 9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6.

30달러로 전월 대비 10.53% 상승했다. 이 제품의 고정거래 가격이 6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만이다. DDR4 15Gb는 15.8달러에 거래중이며 지난달 대비 60% 높은 수치다.

신형 D램의 가격 상승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DDR5 16Gb 현물가격은 9달러



12나노급 32Gb DDR5 D램. /삼성전자

로 지난달 대비 48% 올랐다. 최근 D램 시장에서는 구형 D램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이 급등해 신형 D램 가격을 추월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구형 D램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자 수요가 점차 신형 D램으로 이동하며 세대교체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 신형 D램 가격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D램 수요 증가율은 17%로 생산 증가율인 15%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중심 수요가 서버 D램, GDDR7, LPDDR 5X 등으로 확산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D램 재고 물량을 아끼고 선택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수요확대에도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공장 증설과 신규 투자를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팹택 캠퍼스에 이어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비메모리 사업도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2조원이 넘었던 비메모리 분야 적자도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과 함께 이번 분기에 1조원 가량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산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30일 구체적인 사업부문별 실적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개선에는 D램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단기적인 가격 급등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추세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후보자 접수 6명업일 불과 외부인사 불공정경쟁 '잡음'

BNK금융 경영승계절차

임추위 구성 등 '신속진행' 논란
금융권, 빈대인 회장 연임 수순 지적

BNK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신속진행' 논란에 휩싸였다.

BNK금융이 예정보다 일찍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한 가운데 후보자 서류 접수도 추석 연휴를 전후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빈대인 현 BNK금융 회장의 '연임 수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임추위는 추석 직전인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절차에 돌입했다. BNK금융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시나 언론보도를 진행하지 않았다. 회장 경선 후보 지원서 마감(15일)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에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 지난 두 차례의 대표이사(회장) 선임 당시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실과 일정을 즉각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BNK금융의 이번 임추위가 금융권의 예상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치러졌고, 서류접수도 연휴를 포함해 촉박하게 진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외부 후보군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은행장이나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임원 승계 절차를 가동하도록 정하고 있다. 빈대인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당초 금융권에서는 BNK금융이 11월 이후에야 경영승계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BNK금융은 임추위 구성 직후 주요 외부 후보군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둘러 임추위를 구성한 만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BNK금융 임추위는 통상 한 달여 동안 진행되는 후보군 접수를 2주로 앞당겼다. 회장 지원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력서와 경영 목표, 장기 비전을 담은 계획서 등인데, 2주에 불과한 접수 기간에 추석 연휴가 포함돼 있어 회장 후보군이 지원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6명업일에 불과하다. 임추위 구성 이후에야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외부 후보군에게는 촉박한 일정이다.

BNK금융은 지난 2022년 빈대인 회장의 취임 당시에도 회장 선임 절차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에도 BNK금융은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내부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추진하던 중 금융당국의 시정 지시를 받아 이를 번복한 바 있다.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

/양승진 기자 asj1231@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

유망/일반

사업목적 중소기업 간 업종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촉진 도모

사업내용 각 사업은 3단계(사전준비-현지파견-사후관리)로 구성하되, 사전준비 및 현지파견단계는 필수 진행

사업기간 [유망] 2026년~2028년
[일반] 2026년 1월~2027년 3월

사업규모 [유망] 00개 내외 / [일반] 00개 내외
* 선정규모는 추후 최종확정

신청자격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 수출유관기관 등

지원분야 및 내용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지 원 항 목 전시·상담장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공통경비 지원
* 추진단계별 70% 이내 지원

선정 및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 서류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최종지원사업 선정

접 수 기 간 2025. 10. 10(금)~10. 24(금) 18:00까지

신 청 방 법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www.smes.go.kr/sme-expo)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모집공고 참조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공지사항)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02)2124-3292, 3294, 3295

구 분	지원대상	비 고
해외 전시회	유망	2026년 개최 전시회 한번 선정시 3개년 연속 (~28년까지) 지원
	일반	2026년 개최 전시회 2027년 1분기 개최 전시회
수출상담회	2026년 개최 상담회	단년(1년) 지원